

# 2022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차보고서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2022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차보고서

Sharing Korea's  
Financial Development  
through  
Global Cooperation

목차

<b>발간사</b>	<b>04</b>
<b>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b>	<b>06</b>
<b>설립배경</b>	<b>06</b>
<b>조직도</b>	<b>07</b>
<b>연혁</b>	<b>08</b>
<b>회원기관 동정 (한국증권금융)</b>	<b>18</b>
<b>2022년도 사업보고</b>	<b>20</b>
<b>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b>	<b>22</b>
-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및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22
- 우즈베키스탄 경제포럼	26
<b>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b>	<b>28</b>
- 주베트남 재경관 초청세미나	28
- 주워싱턴 재경관 및 IDB 파견관 초청세미나	30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	32
- 주태국 재경관 초청세미나	34
<b>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b>	<b>35</b>
- 예술산업의 뜨거운 감자 NFT	35
- 해외 ESG 제도 및 금융기관 ESG 책임투자 현황	36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이해와 해외사업 리스크 경감	37
<b>연구용역</b>	<b>38</b>
- 해외 주요 오픈뱅크 선진사례 조사 및 한국 오픈뱅크 수출 전략 도출	38
- 비세그라드 4국(V4) 진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모색	39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진출 방안 수립	39
- 증권금융 모델의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40
- IBK기업은행 베트남 지점 법인전환 관련 연구	40
- 호주 은행산업 진출 관련 연구	41
-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추진 전략	41
<b>기타사업</b>	<b>42</b>
- 해금협 뉴스레터 발간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	42
- 해금협 로고 변경 및 홈페이지 개편	43
<b>정례회의 및 워크숍 개최</b>	<b>44</b>

## 발간사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국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이 모여 설립된 이래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설립 초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해외협력 사업은 이후 중동, 남미,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각 국가의 금융당국 및 글로벌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금융 전문가, 주한 외국 대사관, 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협력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이룩한 협의회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과 금융협회들인 24개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기관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진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금융서비스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회원기관간의 해외사업 정보공유,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며 전 세계 금융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된 해였지만,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협력 분야에서도 대면 행사 및 해외사업들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해금협은 우즈베키스탄 금융기관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주관의 현지 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등 대면 해외교류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뉴스레터 및 이메일 서비스 등을 발간하며 비대면 방식의 대내외적인 금융협력사업도 지속해 나갔습니다.

2023년은 해금협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글로벌 금융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시대 속에서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며 글로벌 금융협력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원기관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기관 여러분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을 통해 해외진출을 향한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를 기원하며, 해금협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이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장 **차우글**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설립배경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1년 10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진출 및 금융협력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제 1차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서는 해외금융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 공유 활성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2년 11월, 제 2차 회의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금융 부문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해외금융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국을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3년 2월 해외금융협의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발적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실질적 사무기구이자 금융 부문에 특화된 해외금융협력 전담 기구로서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를 한국 금융연구원 내에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협의회는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사업추진력과 회원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식으로 회원명부를 수립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명의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3년 현재 총 25개의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 조직도



\*2023년 1월 회원가입

연혁

# 2022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1월**

- 1월 정례회의 개최
- NFT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2월**

-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 주워싱턴 재경관 및 IDB 파견관 초청세미나 개최
- CIFIC 2021년 연차보고서 발간

**5월**

- 5월 정례회의 개최
- ESG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6월**

- 제8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7월**

- 7월 정례회의 개최

**8월**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개최

**9월**

- 9월 정례회의 개최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중앙은행, 예탁결제원, 국가자산관리청 초청연수 개최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10월**

- 해금협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 10월 정례회의 개최

**11월**

- 11월 정례회의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포럼 참석

**12월**

- 12월 정례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1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1월**

- 1월 정례회의 개최

**2월**

-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 CIFIC 2020년 연차보고서 발간

**5월**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 세미나 개최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5월 정례회의 개최

**6월**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초청세미나 개최
- 6월 정례회의 개최

**7월**

- 7월 정례회의 개최

**8월**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경제담당관 초청세미나 개최
- 8월 정례회의 개최

**9월**

- 해금협 로고 공모전 개최
- 9월 정례회의 개최

**10월**

- 디지털 시대 금융협력 방안 초청 세미나 개최
- 제7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11월**

- 지식공유사업(KSP/EIPP) 안내세미나 개최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12월 정례회의 개최
- 「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 전략」 발간
- 「캄보디아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 전략」 발간
- 「중남미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 전략」 발간

연혁

# 2020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 전략 전문가 초청세미나

# 2019



아르메니아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1월**

-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2월**

- CIFIC BiAnnual Vol. 6 발간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 CIFIC 2019 Annual Report 발간

**6월**

- 6월 정례회의 개최

**7월**

- 7월 정례회의 개최
- CIFIC 브로슈어 발간

**9월**

-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 9월 정례회의 개최

**10월**

-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 10월 정례회의 개최

**11월**

-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세미나 개최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현황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방향 세미나 개최
- 12월 정례회의 개최
- 「아제르바이잔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간
-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간
- 「카자흐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간

**1월**

-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 [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 인도 자본시장 투자세미나 개최 지원

**2월**

- 2월 정례회의 개최
- CIFIC BiAnnual Vol. 4 발간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4월**

-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세미나 개최
- 4월 정례회의 개최
- CIFIC 2018 Annual Report 발간

**5월**

-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방안 검토 세미나 개최
-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IBK기업은행] 신남방 4개국 초청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지원
- 5월 정례회의 개최

**6월**

-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주택금융공사, 크레딧뷰로, 증권거래소, 지급결제기관, 예금보험기관 초청연수 개최
- 한-아르메니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7월**

- 디지털 공유경제 속 금융의 역할 세미나 개최
- 제6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 [한국거래소·코스콤] 중남미 금융관계자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태국 자산관리공사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8월**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2019 동아시아보험회의 개최 지원
- CIFIC BiAnnual Vol. 5 발간

**9월**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개최
- 9월 정례회의 개최

**10월**

-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세미나 개최
- 10월 정례회의 개최

**11월**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초청연수 개최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태국 신용보증공사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12월 정례회의 개최

연혁

# 2018



1월

- 1월 정례회의 개최
- 제4회 미얀마 주택금융 워크숍 개최 지원

2월

-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 CIFIC BiAnnual Vol. 2 발간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 CIFIC 2017 Annual Report 발간

5월

-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 초청세미나 개최
- 5월 정례회의 개최

6월

- 정부의 ODA 및 KSP사업 운영 방안 및 회원사 간 해외협력사업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 6월 정례회의 개최

7월

-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몽골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 제5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8월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한-캄보디아 협력강화 방안 검토 세미나 개최

8월 정례회의 개최

- [IBK기업은행·은행연합회] 미얀마 기획재정부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 제5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 CIFIC BiAnnual Vol. 3 발간

9월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초청연수 개최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10월

- [금융결제원·NICE평가정보] 라오스 재무부 및 투자계획부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 10월 정례회의 개최

11월

- [신용정보원·KCB]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 인도네시아 중앙예탁기관 대상 공동 초청연수 개최 지원
- 12월 정례회의 개최

# 2017



1월

- 1월 정례회의 개최

2월

-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 「금융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간
-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초청세미나 개최
-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초청세미나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5월

-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동 토론회 개최
-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한-베트남 펀드시장 상호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
- 5월 정례회의 개최

6월

-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초청연수 개최
-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개최
-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개최
- 6월 정례회의 개최

7월

-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캄보디아 중앙은행 역량강화 연수 개최 지원
-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개최

8월

- CIFIC BiAnnual Vol. 1 발간
- 8월 정례회의 개최

9월

- [신용정보원·NICE평가정보] 라오스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 개최 지원
- 9월 정례회의 개최
-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개최
-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개최

10월

-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엑스포 지원
- 10월 정례회의 개최

11월

- 제4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12월 정례회의 개최
- [금융결제원·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연혁

# 2016



**1월**

- 1월 정례회의 개최

**2월**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지원
-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

**3월**

-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간
-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 초청연수 개최
- 제4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 세계은행 송도사무소 초청세미나 개최
-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연수 개최
-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6월**

-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개최
- 6월 정례회의 개최

**7월**

- 미얀마 계획재무부 초청연수 개최
-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7월 정례회의 개최

**8월**

-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학기술부 초청연수 개최
-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연수 개최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9월**

- 9월 정례회의 개최

**10월**

- 10월 정례회의 개최
-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연수 개최
- 한-이란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11월**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금융위기 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성과」 발간
- 12월 정례회의 개최

# 2015



**1월**

- 1월 정례회의 개최

**2월**

- 「국내금융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발간
-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3월**

- 3월 정례회의 개최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연수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5월**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개최 지원
-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 제2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6월**

- 제3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 금융세일즈외교 대상국 선정을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

**7월**

- 7월 정례회의 개최

**9월**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지원
- 9월 정례회의 개최

**10월**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11월**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간
-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12월 정례회의 개최



연혁

# 2014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1월**

-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2월**

- 2월 정례회의 개최

**3월**

-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4월**

-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4월 정례회의 개최

**5월**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원
-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개최

**6월**

- 6월 정례회의 개최

**7월**

- 7월 정례회의 개최

**8월**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9월**

- 9월 정례회의 개최

**10월**

- 덴마크 Danske Bank 초청연수 개최
- 10월 정례회의 개최

**11월**

- 미얀마 보험공사 초청연수 개최
-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1월 정례회의 개최

**12월**

-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12월 정례회의 개최

# 2013

한-우즈베크 금융협력포럼



**2월**

- 2월 정례회의 개최

**3월**

- 제1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4월**

- 4월 정례회의 개최

**5월**

- 5월 정례회의 개최

**6월**

- 6월 정례회의 개최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연수 개최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7월**

- 7월 정례회의 개최

**9월**

-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간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10월**

- 10월 정례회의 개최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포럼 개최

**11월**

-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간담회 개최 지원

**12월**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초청연수 개최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제2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개최

## 회원기관 동정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설립 10주년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는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10주년이 되는 지금은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해 회원기관들의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하 '증권금융')은 해금협 출범 초기부터 해금협과 함께해 온 해금협의 일원으로서, 해금협의 다양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금융은 1955년 증권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회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받고 있으며, 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금융은 우리사주 전담관리 기관으로서 우리사주제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대차중개, RP거래, 수탁 등 자본시장 인프라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금융은 평시에는 자금과 증권을 증권사와 투자자에게 공급하여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기 시에는 선제적으로 증권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사 증권금융은 5.9조원 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였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PF-ABCP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한 구조화금융에도 참여하여 증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체 조성한 자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금융은 이를 위해 재무건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바탕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권금융은 60여년 이상 구축한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다수 기관에 그 간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 증권금융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흥국에서의 증권금융 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 국가들은 자국 내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증권금융제도와 투자자예탁금 전담예치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캄보디아, 몽골 등 국가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 초청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금협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증권금융이 향후 해외 신흥국과 접촉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증권금융은 해외 증권금융회사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외 증권금융회사와의 MOU를 확대하고, 상호 간 인력 교환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규 협력 업무를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환경 하에서도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해금협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해금협이 그 간의 도전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첨병이자 교두보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증권금융도 해금협의 나아갈 길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해금협의 설립 10주년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윤창호

# 2022

사 업 보 고



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연구용역

기타사업

정례회의 및 워크샵 개최

해외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및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9월 16일(금)부터 9월 21일(수)까지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과 양국의 금융산업 현황 공유 및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중앙은행, 국가자산관리청, 예탁결제원 소속 임직원 11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은 해금협이 주최한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를 방문해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는 2022년 9월 19일(월)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연수단과 해금협 13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현황 및 과제',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KRX 시스템 가동 이전과 이후, 그리고 도전과제',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 및 '우즈베키스탄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이윤석 센터장이 개회사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알리셰르 참사관이 축사를 맡았다. 이어서, 알리셰르 참사관과 한국거래소 최현수 자문위원,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Mukhammaddiyor Matchonov 과장 및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Bakhtiyor Murodullaev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표가 진행됐다.



###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 현황 및 과제

Alisher Abdusalomov | 참사관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알리셰르 참사관은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협력 30년: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1992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설립한 이후 30년간의 협력관계를 5개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대우의 자동차 공장 설립, 정치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 전자정부 프로젝트 지원, 양국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양국의 교류 발전 역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FTA 체결, 우즈베키스탄 내의 한국 대학교 분교 설립, 에너지 및 보건 관련 프로젝트 등 무역 및 교역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마르칸트 벽화에 그려진 한국인 학자들을 보여주며 양국 간의 협력은 천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으며, 향후 전방위에 걸쳐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 KRX 시스템 가동 이전과 이후, 그리고 도전과제

최현수 | 전문위원 | 한국거래소

최현수 전문위원은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과 한국거래소에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 중인 증권종합시스템 EXTURE+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수는 약 100개 이상이며 매년 20여개의 회사가 새롭게 상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화 30억 정도이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거래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TURE+이 우즈베크 증권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2017년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주식 매매의 단계별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고, 끊임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가총액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IT 시스템 구축, 투자자 기반 확충, 유동성 공급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유동성과 관련하여 국민주 보급을 통해 일반 국민의 증권시장 참여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Uzbekistan Capital Market Development

Mukhammaddiyor Matchonov | 과장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Mukhammaddiyor 과장은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2021-2023년까지의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주식발행, 금융상품 개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및 정부 은행의 민영화, 회사채 시장 개발, 투자자 기반 확대, 금융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로는 개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 배당금 소득세 면제, 외국계 은행 및 투자 중개업체의 인수활동 허가에 대한 대통령령이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에서는 현재 외환 거래소, 증권거래소, 타슈켄트 증권거래소에서 각각 거래되고 있는 국채, 유가증권, 회사채를 단일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합된 유가증권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of Uzbekistan

Bakhtiyor Murodullaev | 수석 이코노미스트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Bakhtiyo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즈베키스탄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인프라와 무현금 결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선, 우즈베키스탄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6개가 있으며, 상업은행은 디지털 은행을 포함하여 33곳이 있다고 전했다. 은행간 결제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매커니즘이며, 청산결제 시스템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즉시결제 시스템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 기업가가 원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연중무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HUMOPay, UZCARD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소액결제 시스템도 각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무현금 결제를 통해 통신료,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한 결제 등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금융 포용에 관한 국가 전략과 관련하여 무현금 전략이 우선 과제로 세워졌으며,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01



### 01 금융보안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연수단은 2022년 9월 19일(월) 금융보안원을 방문하여 금융보안관제센터를 견학하였으며, 보안원은 사이버 공격 현황을 직접 보여주고 보안원의 기술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 02 한국거래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차관을 비롯한 재무부 연수단은 2022년 9월 19일(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한국거래소의 증권 거래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현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02

### 03 금융결제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연수단은 2022년 9월 20일(화)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금융결제원의 업무 및 오픈뱅킹에 대한 소개를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03



04



05



06

### 04 한국예탁결제원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및 예탁결제원 연수단은 2022년 9월 20일(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청산결제 서비스, 글로벌투자지원서비스, 글로벌금융서비스, IT 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 05 은행연합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연수단은 2022년 9월 20일(화) 은행연합회를 방문하였으며, 연합회는 경남은행과 함께 은행연합회, BNK 금융 그룹을 소개하고 국내 은행산업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 06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 연수단은 2022년 9월 20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를 방문하였으며, 캄코는 한국의 공공기관 평가 제도, 캄코 국유재산 관리 현황 및 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경제포럼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11월 1일(화)부터 11월 7일(월)까지 5박 7일간 우즈베키스탄 재무부가 주최하는 Uzbekistan Economic Forum 2022에 초청되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동 포럼 초청은 2022년 9월 해금협에서 개최한 우즈베키스탄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및 금융협력세미나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한-우즈베키스탄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포럼에는 해금협 및 10개의 회원기관(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신용정보원, KDB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및 여신금융협회)이 출장단으로 참여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경제포럼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포럼 2022’는 2022년 11월 3일(목)부터 11월 4일(금)까지 2일간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은행 Anna Bjerde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부총재는 개회사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좋은 성과를 거둔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국가를 더 탄력적으로 만든 시장 개혁 덕분이며, 5.3%의 국내총생산 예상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동 포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변화, 우즈베키스탄의 개혁과 Green Economy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이슈 부각 등과 관련하여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이점과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가 언급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젊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업무지식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금융개혁과 Green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외부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의료, 사회보호 등의 인적 자원을 통해 Green Economy가 달성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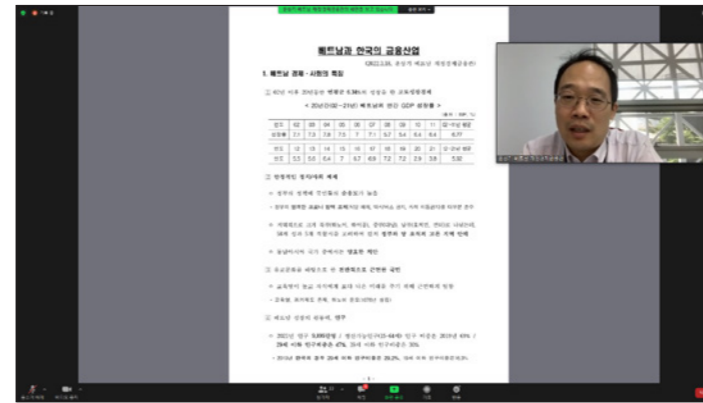
# 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주베트남 재경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3월 18일(금) 화상회의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주베트남 재경관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해금협 회원기관의 진출수요가 높은 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최신 현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윤상기 재경관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베트남과 한국 금융산업

윤상기 | 재경관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윤상기 재경관은 ①베트남 경제·사회의 특징, ②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③베트남의 한국 금융산업, ④금융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베트남의 기회, ⑤금융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베트남의 약점 및 위험, ⑥베트남 진출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베트남 경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6.34%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순응도가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체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치안이 양호한 편이며, 유교 국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근면하고 교육률이 높다고 전했다. 인구

구조는 인구 약 1억명 중 29세 이하 비중이 47%로 경제 성장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제, 사회, 교통 인프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사고이력 조회시스템의 미비 등 법령, 금융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베트남은 한국의 교역국 4위, 한국은 베트남의 교역국 3위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생산 기지라고 강조했다. 약 9,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17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는 등 베트남과의 밀접한 관계를 수치로 설명하였다.

세 번째, 금융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에는 있는 외국계 금융사 중 한국계 금융사는 47개로 가장 많다고 전하였다. 은행업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 기업이나 교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점차 현지인 대상 영업을 확대하였으며, 현지직원 비율도 9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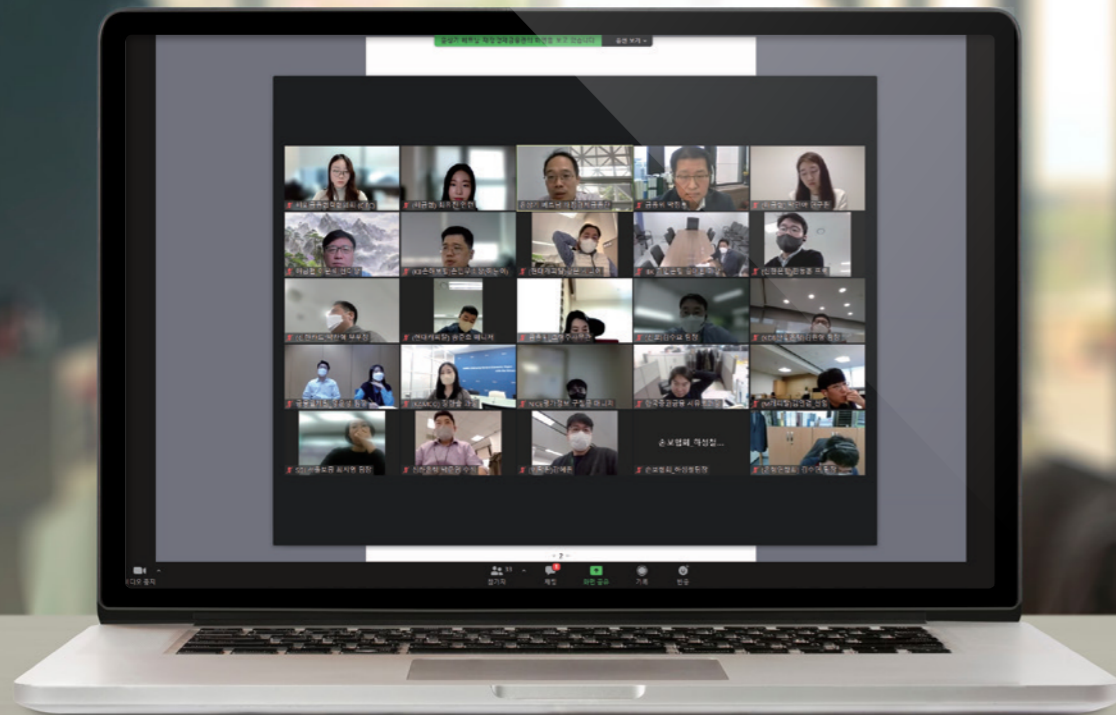
한국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 현황

형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캐피탈 등	합계
현지법인	3	5	10	4	22
지점	6	1			7
사무소	2	3	10	3	18
합계	11	9	20	7	47

네 번째, 금융산업 측면에서 본 베트남의 기회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 금융 투자 등이 모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베트남 보험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23%인 상황에서 한국 보험사가 아직 50% 정도만 진출한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한국 보험업계의 베트남 진출 확대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좋게 형성되어 있어 신뢰가 중요한 금융산업에서 한국은 좋은 브랜드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금융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베트남의 약점과 위험으로는 베트남의 펀드시장, 보험시장이 미성숙된 상황인 점과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였다. 은행은 보통 지점을 설립하는데 3~5년 정도 소요되며, 현재 베트남 현지은행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보험은 인허가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은행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무소를 세우고 금융당국과 관계를 맺은 후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는 대부분 베트남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에 대한 조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창출 방법, 베트남에서 각 기관의 강점 적용여부, 주력 상품이 판매될 베트남 시장의 성숙도 등을 분석한 후 진입할 것을 조언하였다. 특히, 단기 흑자가 나기까지는 보통 4~5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제도적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 주워싱턴 재경관 및 IDB 파견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4월 12일(화)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금융협력 현황과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사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주워싱턴 재경관 및 IDB 파견관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미국 소재 국제금융기구의 현황과 협력 추진방식 및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주워싱턴 이재훈 재경관님과 미주개발은행 고광희 국장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미국 소재 국제금융기구 일반 현황 및 협력 추진방식

이제훈 | 재경관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이제훈 재경관은 ①미국 내 공간 일반현황, ②미국 내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한국 금융기관 진출현황, ③세계은행그룹 일반 운영현황, ④최근 금융 분야 주요 이슈, ⑤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추진절차 및 금융협력 접근방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미국내 일반 공간현황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은 정치·행정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 있으며, 9개의 총영사관은 뉴욕, LA, 시카고 등에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워싱턴 DC 및 뉴욕에는 재정·경제·금융을 담당하는 재경관이 파견되어 있으며, 다수의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워싱턴 DC에 소재한 국제기구에는 WBG(World Bank Group),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있으며, 한국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이 진출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WBG의 기관 5개와 전세계 개도국 대상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최근 WB가 지향하는 개발 프레임 “GRID”(Green, Resilient, Inclusive, Development)와 그에 따른 금융분야 트렌드를 소개하였다. 녹색전환을 뜻하는 Green은 그린본드 발행 및 자본 조달 금융기법을, 회복 및 위험관리를 의미하는 Resilient는 금융구조조정 기법을, 포용 및 기회평등을 의미하는 Inclusive는 핀테크 활용 결제시스템 및 전자화폐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에는 Loan, Investment,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추진절차는 요청국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WB 현지사무소 또는 WB 본부 해당부서에 지원요청을 하면 WB가 해당국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후 이사회의 상정 및 확정을 받아 집행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희망 국가 담당자 및 국제기구 직원과 평소 활발하게 교류하는 네트워킹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해당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실 및 국제금융기구 한국 이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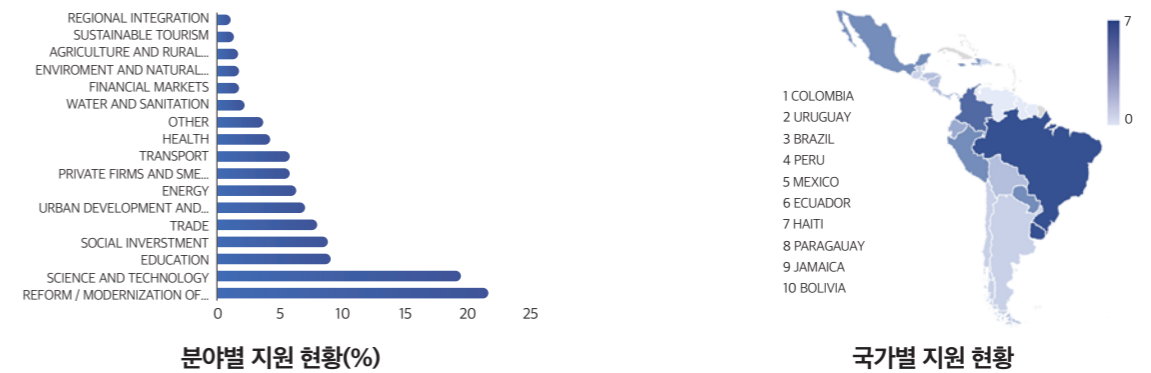
### 미주개발은행(IDB) 소개 및 협력 방안

고광희 | 국장 | 미주개발은행

고광희 국장은 ①IDB 개요, ②IDB와 한국의 협력 현황, ③IDB 협력을 통한 중남미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IDB는 26개 역내 회원국과 22개 역외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DB Group은 공공투자 촉진 및 개도국 개발정책을 지원하는 IDB,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및 기업혁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IDB Invest,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DB Lab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IDB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 KTFs),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한-IDB 협조융자 퍼실리티(Korea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Financing Facility, KIF) 등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IDB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IDB 협조융자 퍼실리티는 중남미 및 카브리 지역 대상 공공인프라 구축에 IDB가 함께 참여하여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퍼실리티로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중남미 경제협력을 위해 한-IDB가 공동으로 포럼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국신탁기금 지원 현황



마지막으로, IDB와의 협력사례로 한국거래소의 초청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자산관리 시스템 수출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모델 시범 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IDB와 협력하여 중남미에 진출할 경우 중남미 국가들의 현지 수요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IDB와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기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10월 5일(수) 화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금융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금융이슈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금협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병호 선임연구위원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김의택 재경관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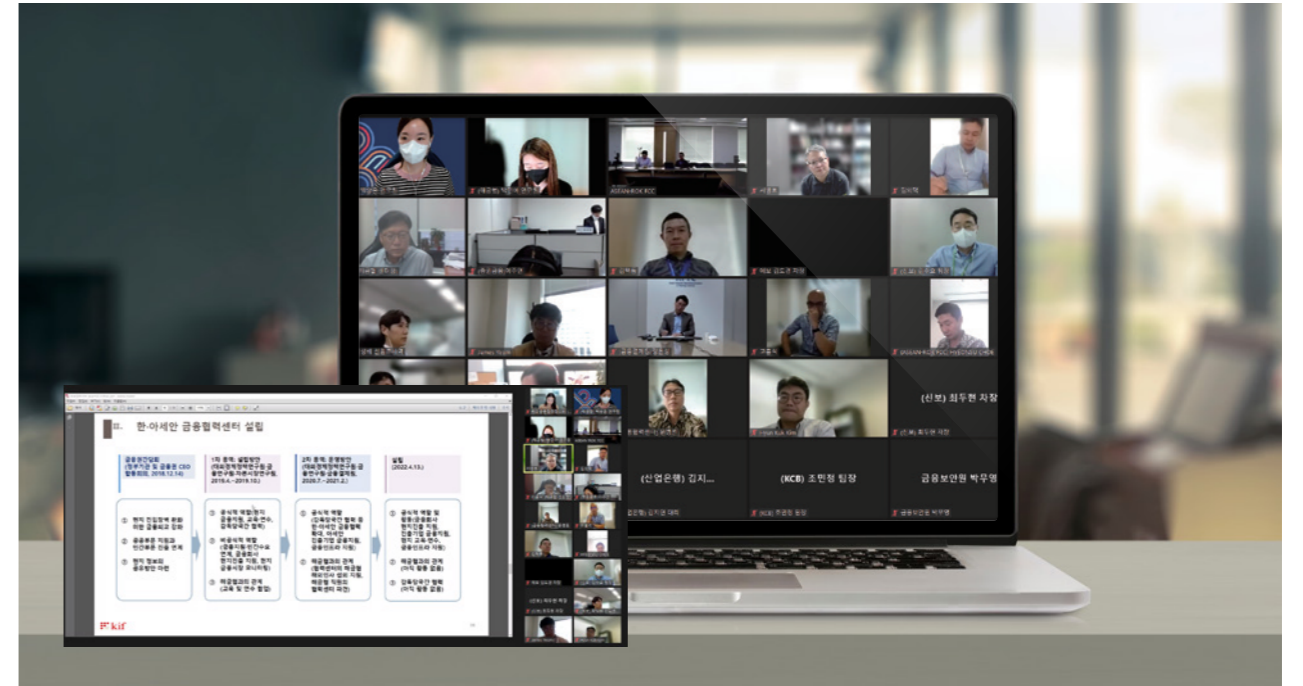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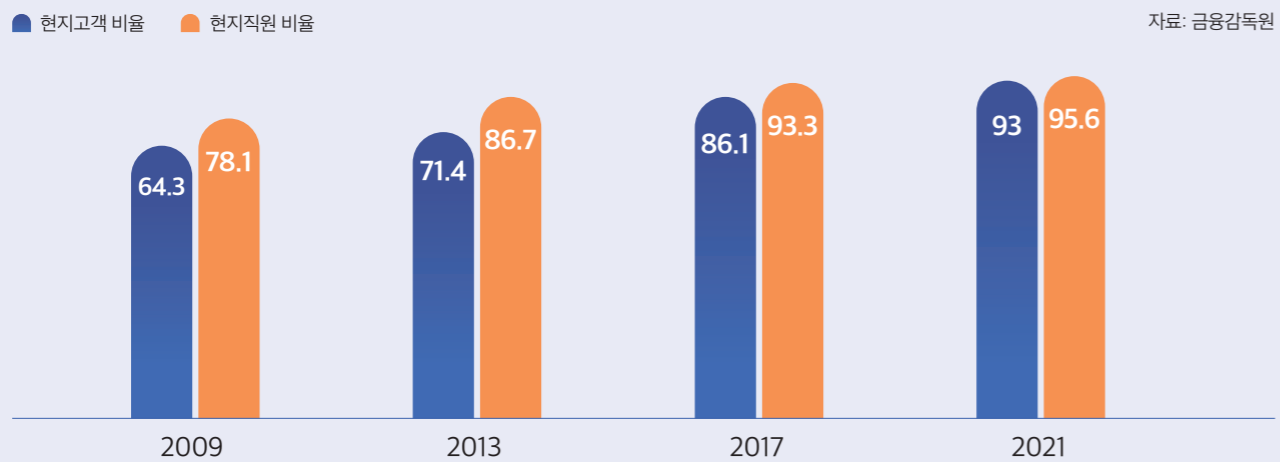
###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서병호 | 선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 금융시장의 기회 및 위험요인,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현황,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아세안 금융시장의 기회요인으로 명목 GDP 6.5조달러의 큰 경제규모, 약 20.6억명의 인구수, 최근 5년 평균 5.5%의 높은 경제성장률, ASEAN Passport 등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금융통합 추진 등을 꼽았다. 반면, 천연자원, 무역, 외채 등에 대한 높은 의존과 일본계-중국계 자본의 영향력, 현지 진입장벽 강화 추세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국내 금융회사는 주로 현지법인 형태의 소매금융이 진출하였으며, 현지기업 및 현지인 대상 영업, 현지인 임직원 채용, 현지 금융회사 M&A 및 지분 인수 등이 트렌드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자기자본 1% 상회 투자 시 금융감독원 허가가 필요하며, 통화가치 변동성과 관련된 위험가중치가 높아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은행 현지화지표 추이

단위: %



### 한-아세안 센터 주요 활동 소개 및 아세안 국별 주요 동향

김의택 | 재경관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김의택 재경관은 ①한-아세안 금융협력 센터 소개, ②아세안의 금융발전 지원, ③국내 금융회사/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 ④아세안 국가 주요 특징 및 진출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과 한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협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자카르타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 4월 정식 출범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개의 금융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중이라고 전하였다.

이어서 센터의 두 가지 주요 업무에는 아세안의 금융발전 지원과 국내 금융회사/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먼저, 아세안 금융발전 지원은 금융통합, 금융포용, 금융안정 등 세 가지의 목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금융통합 지원으로는 금융지급결제시스템 및 자본시장 분야의 역량 강화와 금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금융포용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전문가 육성 지원 및 정책 컨설팅과 아세안 현지 영세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안정 지원으로는 예금보호자제도 도입 및 개선지원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와의 협력 강화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회사/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서 아세안 금융담당관 회의 정례 개최, 아세안 순회 간담회 개최, 아세안 주요국 내 은행업 신규 라이선스 획득 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 진출의 지원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세안 진출 기업 대상 신용보증 공급 확대, 아세안 진출 희망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한-아세안 정책금융 교차지원 등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건설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는 공통적으로 모호한 금융 규제가 많으며, 금융당국의 파워가 막강하고,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하였다. 진출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47개, 인도네시아 30개, 캄보디아 17개, 미얀마 24개의 국내 금융사가 진출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브루나이 등 5개국의 경우 유의미한 한국 금융사의 진출이 없고 향후 진출도 불확실한 상황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현지진출 기업과 교민사회에서는 한국계 은행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초청세미나 주태국 재경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8월 22일(월)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태국의 금융협력 현황과 협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주태국 재경관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태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금협 회원기관에게 필요한 현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영임 재경관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최근 태국의 금융협력 현황과 협력 가능성

김영임 | 재경관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영임 재경관은 ①태국 경제 및 금융현황, ②한국 금융기관 진출 현황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태국은 방대한 국토,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등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라고 설명하였다. 태국의 금융산업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은 현지은행 18개, 외국은행지점 11개로 총 29개가 있다고 전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 현황으로는 2021년말 기준 보험, 증권 등 4개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단독진출보다는 현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은행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시 철수 이후 다시 진입하지 못하여 산업은행만 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전하였다. 한국 금융기관들은 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태국 당국은 최근까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에 대해 부정적이며, '14년 이후 외국계은행의 진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태국내 한국 금융기관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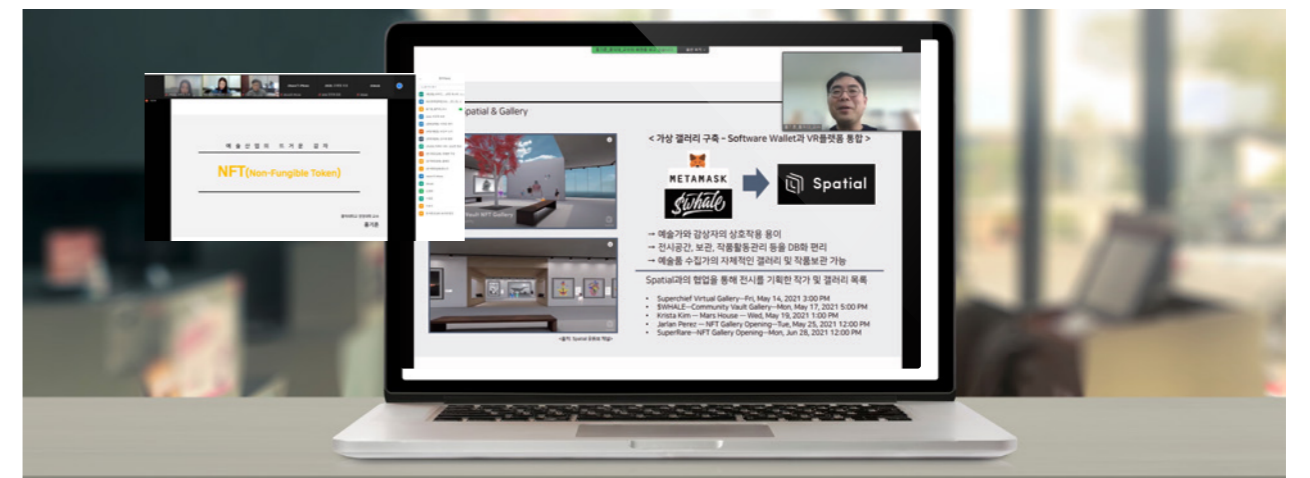
구분	회사명	해외점명	진출형태	진출시기
보험	삼성생명	Thai Samsung life Insurance Public Co., LTD	현지법인	1997
증권	KTB 투자증권	KTBST Securities PCL(파이스트 인수)	현지법인	2008
은행	산업은행	산업은행 방콕 대표사무소	사무소	2013
여전	KB 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제이핀테크 인수)	현지법인	2021

이어서,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기술혁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부문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개방경쟁, 개방형인프라, 개방데이터 및 녹색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태국 진출을 통해 디지털 금융 초기 단계인 태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다만, 현재 태국의 은행 부문이 성숙한 단계이고, 정부도 디지털 금융 도입을 통한 금융포용성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 뱅크 등 디지털 금융 분야의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이 용이할 것이며, 한국 대기업 등 기업 진출과 금융기관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신규 허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NFT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1월 14일(금) 화상회의를 통해 '예술산업의 뜨거운 감자 NFT(Non-Fungible Token)'라는 주제로 NFT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금협 회원기관의 사업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예술산업의 뜨거운 감자 NFT

홍기훈 | 교수 |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NFT의 개념 및 이해, 문화예술 산업에서의 NFT 활용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삶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온라인에서의 자신의 삶이 현실에서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시킨 삶이 다시 디지털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의 자신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며, 자산이 기록될 등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NF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라는 자산을 거래할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NFT는 기술적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특정 주소에 저장한 후 거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산업이 문화예술 산업이라는 점과 멀티미디어 산업이 부상하게 된 세 가지 혁신을 언급하며 NFT가 어떻게 예술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먼저, 세 가지 혁신은 네트워크 기술(인터넷)의 혁신, 하드웨어 기술(스마트 기기)의 혁신, 그리고 정보 콘텐츠라고 언급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이미 발달한 시기에 정보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중 온라인 세계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인 문화예술이 NFT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시장은 더 이상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원래 목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예술 콘텐츠 보다는 가치 저장의 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 자산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코인들은 거래의 매개체를 지향하는 최소한의 투자 자산 혹은 특정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인 반면, NFT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게임산업에서의 NFT 활용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게임은 결국 거래하는 게임이며, 게임의 핵심은 콘텐츠라고 강조하였다. NFT의 원래 목적이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에 걸린 콘텐츠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 ESG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5월 18일(수)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화상회의를 통해 '해외 ESG 제도 및 금융기관의 ESG 책임투자 현황'이라는 주제로 ESG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해금협 회원기관의 수요가 높은 ESG 관련 이슈들을 파악하기 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 안상희 센터장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해외 ESG 제도 및 금융기관의 ESG 책임투자 현황

안상희 | 센터장 |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

안상희 센터장은 ①해외의 주요 ESG 법·제도 및 정책 동향, ②국내의 금융기관의 책임투자 동향, ③국내의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④기업의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ESG의 핵심인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의 전통적인 경제적 수익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가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법 제도로 EU는 포괄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인프라 투자 중심의 정책, 일본은 신 사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과 연계, 한국은 인프라 투자와 신 사업 육성 두 가지를 중점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내의 금융기관들의 책임투자과 관련하여서는 ESG 투자는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 투자와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책임투자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는 주요 10개 산업의 ESG 공시 지침을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와 환경을 중점으로 하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책임투자 전략으로는 술, 마약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통적인 재무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ESG 통합, 주주제안서 제출 등의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기업경영 참여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제로는 일본, 노르웨이,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일본의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위탁운용사가 모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NBIM(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은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ESG통합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Ca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책임투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 책임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은 탄소중립기본법,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배구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혹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로드맵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혹은 책임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핵심 ESG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금융기관은 기업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등 정보 공개에 대한 3자 검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2년 11월 15일(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의 이해와 해외사업 리스크 경감'이라는 주제로 MIGA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 동 세미나는 국제투자보증기구를 소개하고 MIGA의 금융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 오규원 Senior Underwriter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국제투자보증기구의 이해와 해외사업 리스크 경감

오규원 | Senior Underwriter | MIGA

오규원 Senior Underwriter는 MIGA의 전반적인 사항, MIGA의 상품, 한국 기업의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MIGA는 World Bank Group에서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함께 민간 부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직접투자과 관련하여 정치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저개발 국가 앞으로 자본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GA는 지난 10년간 많은 성장을 하여 현재 230억달러 정도의 보증액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40억달러 정도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 보증비율은 아프리카 25%, 남미 22%, 중앙아시아 20% 정도로 주로 아프리카와 저개발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MIGA의 상품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는 해외투자를 보증하며, 투자 종류로는 자기자본투자, 대출, 스왑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MIGA 보증프로그램은 현지 정부의 귀책사유로 현지 통화의 합법적인 환전 및 해외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현지 정부로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권리를 위협받는 경우, 전쟁 및 내란으로 인한 피해, 투자자와 현지 정부 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현지 정부의 원리금 미지급 피해 등을 보증한다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의 사례로는 파키스탄의 하이드로 파워 프로젝트 진행 시 파키스탄 정부와 물 사용권, 전력구매 계약 등에 대해 브리지 계약을 제공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터키 가잔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MIGA 보증을 통해 전쟁, 쿠데타 등 터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프리미엄을 올리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추기적으로, 진재영 MIGA 한국 대표는 국내 은행들이 개발도상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MIGA의 커버를 받으면 위험가중치가 0%로 적용이 되어 자기자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에도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더 낮은 금리와 장기로 빌려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연구용역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회원기관의 다양한 연구주제 수요를 반영하고 해외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실제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원기관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금융결제원(해외 주요 오픈뱅킹 선진사례 조사 및 한국 오픈뱅킹 수출 전략 도출), 신용보증기금(비세그라드 4국(V4) 진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모색),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진출 방안 수립), 한국증권금융(증권금융 모델의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IBK 기업은행(IBK기업은행 베트남 지점 법인전환 관련 연구), KDB 산업은행(호주 은행산업 진출 관련 연구), 은행연합회(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추진 전략) 등 총 7개의 기관이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용역수행자를 선택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 해외 주요 오픈뱅킹 선진사례 조사 및 한국 오픈뱅킹 수출 전략 도출



금융결제원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해외 주요 오픈뱅킹 선진 사례 조사 및 한국 오픈뱅킹 수출 전략 도출」 연구용역은 우리나라 오픈뱅킹 모델의 장단점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수출전략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오픈뱅킹 모델을 효과적으로 해외에 공유 및 전파하고자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 까지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영국, EU, 호주, 싱가포르 등 오픈뱅킹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글로벌 오픈뱅킹 현황 및 발전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오픈뱅킹의 장단점을 식별하고 경쟁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오픈뱅킹 모델의 수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오픈뱅킹 도입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시장주도 접근법과 규범적 접근법의 중간인 촉진적 접근법을 우리나라 모델의 경쟁력으로 제시하였으며, 빠르고 유연한 동시에 안정적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경쟁력으로는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단일한 접근점을 통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참여하여 별도 제휴 없이도 소비자에게 조화·이체 등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꼽았다. 한편, 핀테크 산업 육성 및 금융포용, 디지털 금융 전환 등을 당면과제로 가지고 있는 국가를 수출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오픈뱅킹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출전략 수립 시 과거 지급결제 시스템의 수출경험 참고, 우리나라 오픈뱅킹 모델에 관한 홍보자료 마련, 공여 경쟁국의 오픈뱅킹 도입 사례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비세그라드 4국(V4) 진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모색



신용보증기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비세그라드 4국(V4) 진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모색」 연구용역은 한국의 대EU 수출 및 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경영 및 금융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동 연구는 V4의 거시경제 및 산업환경,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V4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국제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V4 진출 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해외투자사업보증제도와 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제도는 '해외투자자금 보증'과 '해외사업자금 보증'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진출 방안 수립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수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진출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운영성과를 진단하고,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사업 사례 분석과 당위성 기반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동 연구는 국내외 주택금융시장 환경 분석, 공공서비스 특성 분석, 공공성/효용성/지속성 기반의 해외지사 신설 타당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지사 신설 당위성 및 중장기 전략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지사 신설 타당성 평가는 다섯 가지 과정별 진단·분석을 통해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해외지사 신설 사업은 공사의 정책적 역할 확대 및 미래 양질의 주거복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단기·중장기 전략목표별 맞춤형 해외사업 수행과제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 증권금융 모델의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한국증권금융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수행

「증권금융 모델의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연구용역은 증권금융 전담기관 모델의 해외 보급이 가능한 국가 및 권역을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수행하는 증권금융업무(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인수금융·유통금융·담보금융 일체 통칭)와 투자자예탁금전담예치 관리업무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경제적 기능과 함께 한국증권금융의 성장 과정 및 자본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해외 증권금융 전담기관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인 실물경제, 시장인프라, 플레이어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금융선진도, 문화적 유사성, 제도적 유사성, 기타공공금융기관 진출현황 등을 세부적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도입 가능국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도입가능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각 국가의 정치·경제·자본시장 발전 현황 및 확대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 IBK기업은행 베트남 지점 법인전환 관련 연구



IBK기업은행 | PwC 컨설팅 수행

「IBK기업은행 베트남 지점 법인전환 관련 연구」 연구용역은 베트남 시장·진출 금융기관 환경 분석을 통해 기업은행의 베트남 법인전환 당위성 및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베트남 경제·정치 환경 조사 및 기업은행 내부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은행 법인전환이 베트남 경제·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부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 확대를 위한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 규제 준수방안을 정비하여 선진화한 금융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기업은행은 국내 유일 중소기업지원 목적의 정책은행으로, 한국 중소기업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기타 국가 대비 높은 성장 실현 및 향후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IBK 베트남법인 전환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IBK 베트남 법인 설립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 기여, 고도화된 선진금융시스템 도입, 중소기업금융 노하우 전수 등 베트남 경제 및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호주 은행산업 진출 관련 연구



KDB산업은행 | PwC 컨설팅 수행

「호주 은행산업 진출 관련 연구」 연구용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의 호주 진출 확대 및 현지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한국계 은행의 호주 사업 확대를 대비하고자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동 연구를 통해 한국계 은행이 호주 시장에 진출할 때의 실익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호주 금융시장과 호주 은행업의 특징 및 호주 내 외국 은행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고, 한국계 은행이 호주 진출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또한, 진출 유형별(법인, 지점) 장·단점과 제약사항, 회계 처리 및 세무 이슈, 주요 현지 규제기관과 호주 진출 한국계 은행이 적용 받는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향후 호주 진출 후 효과적인 규제 대응 및 안정적인 은행업 운영을 위하여 규제의 변화 가능성 및 주요 감독 이슈들을 제시하였다.

### 호주에 진출한 해외은행 현황

	Key Findings		
<p><b>New entrant: Barclays is back</b> Barclays Bank was the only foreign bank to be granted a banking licence last year.</p>	<p><b>North America</b> Was the fastest growing region, growing resident Australian assets 17% - but down by 10 percentage points on 2020.</p>	<p><b>Europe</b> Bank assets rose by 5% with growth by French and Dutch banks more than offsetting the contraction by Swiss and German banks.</p>	<p><b>Asia</b> Bank assets in Australia were largely flat, with growth from Singapore and Taiwan offsetting contraction by Korean and Japanese banks.</p>
<p><b>Softer growth in softer economic conditions</b> Australia's weaker economic growth led to slower lending growth, limiting the growth in resident assets.</p>			

##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추진 전략



은행연합회 | PwC 컨설팅 수행

「주요 선진국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은 코로나 이후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해외진출 및 운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자 2022년 9월 6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국내외 은행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금융사의 국가별 해외 당기순이익과 점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진출이 집중되어 국내 은행간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출 분야가 여수신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은 금융그룹별로 상이하나, 다수의 국가에서 강력한 현지화를 하는 Regional Model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부 진출사례로는 HSBC, Citi Bank, MUFG, SMBC, DBS, UBS 등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기타사업

# CIFC 뉴스레터 발간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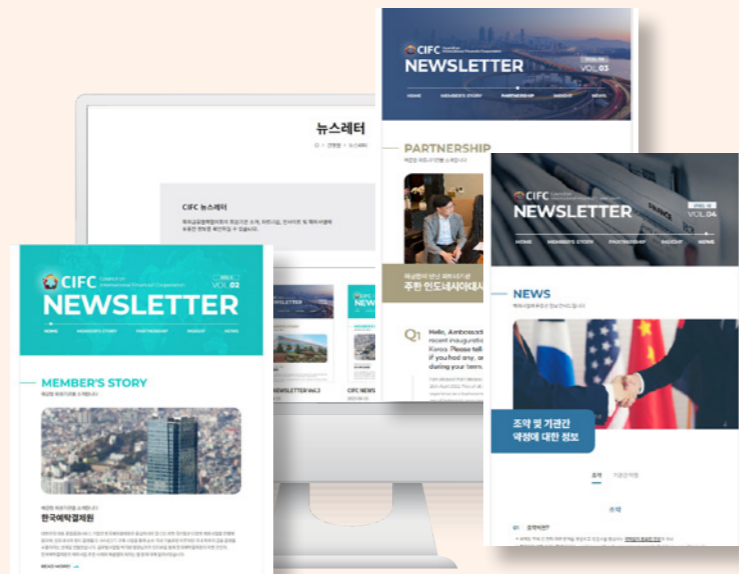
## ✈ CIFC 뉴스레터 발간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해금협 회원기관 및 파트너기관을 인터뷰하여 소개하고 금융 전문가의 인사이트 및 해외 사업에 유용한 정보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CIFC 뉴스레터를 연간 세 차례 제작 및 배포했다.

뉴스레터 2호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소개, IFC 한국사무소 소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님의 기고글(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해외 출장 이후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최신 정보 등을 수록하여 2022년 6월 15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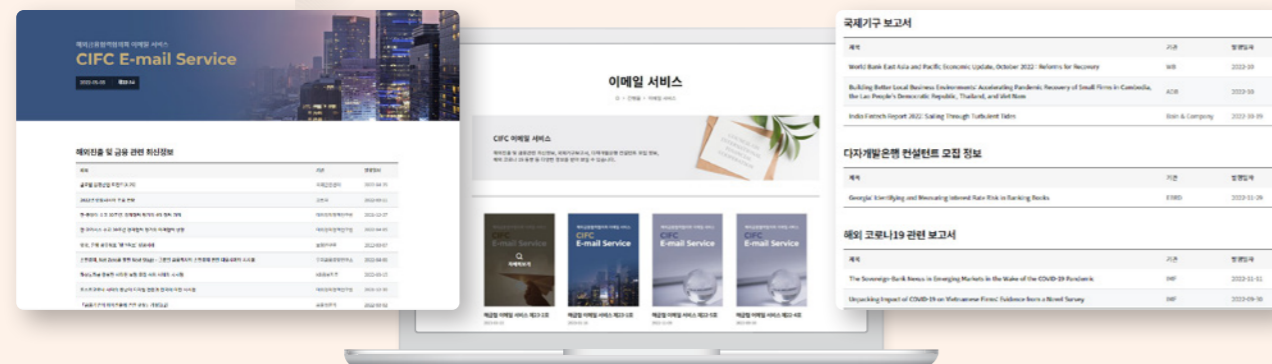
뉴스레터 3호에서는 보험개발원 소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인터뷰, Climateworks Foundation 박형건 디렉터님 기고글(금융산업 : ESG의 수호자·조력자), 국가별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최신 정보 등을 수록하여 2022년 8월 23일 발간하였다.

뉴스레터 4호에서는 금융보안원 소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소개, 숭실대학교 김지영 교수님의 기고글(2022년 헝가리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조약 및 기관간 협약(MOU)에 대한 정보 등을 수록하여 2022년 12월 16일 발간하였다.



## ✉ CIFC 이메일 서비스 제공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해외진출 및 금융관련 최신정보, 국제기구보고서, 다자개발은행 컨설턴트 모집 정보, 해외 코로나 19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회원기관에게 제공하고자 CIFC 이메일 서비스를 연간 다섯 차례 제작 및 배포하였다.



기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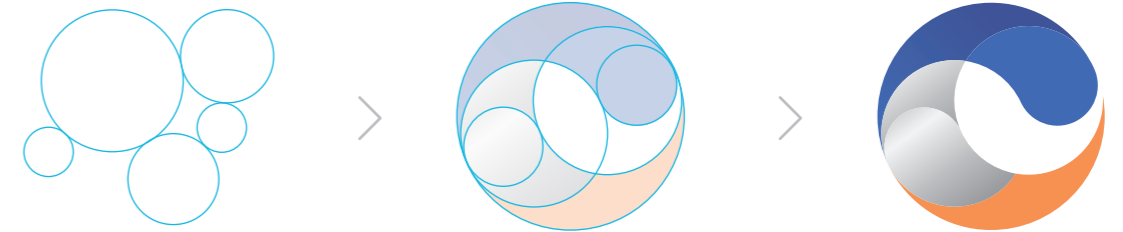
# CIFC 로고 변경 및 홈페이지 개편

## 🌐 해금협 로고 변경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제금융협력을 선도하는 해금협의 이미지를 현대감각에 맞게 새롭게 변경하여 해금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해금협 로고 변경 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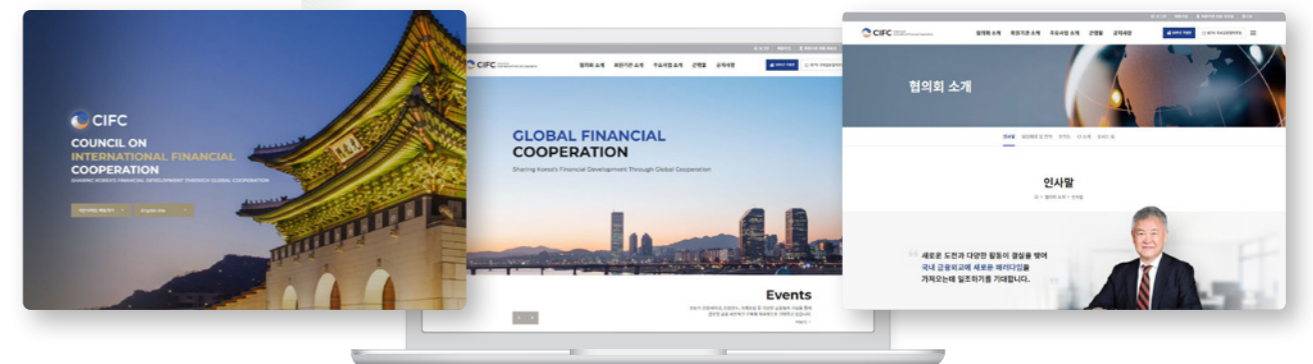
### ▶ 심벌 의미

CIFC의 C는 '협력'이라는 핵심메시지에서 출발하여 CIFC와 전세계 금융기관의 관계성을 원형 그래픽으로 비유하였으며, 다양한 원형이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지구의 구체와 CIFC의 대표 이니셜 'C'를 나타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협력 협의체인 'CIFC'와 전세계 금융회사들과의 "연결"과 "협력"을 상징하며, 심볼의 안쪽에는 태극 문양의 양극이 융화되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협력 협의체로서의 위상과 글로벌 금융협력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 해금협 홈페이지 개편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해금협의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웹 언어, 디자인, 관리자 기능 등을 변경하고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하였다. 메인 및 세부 페이지 디자인 변경, 콘텐츠 보완, 뉴스레터 및 이메일 서비스 페이지 추가, 관리자모드 기능 개선 등을 구현하였다.



# 정례회의 및 워크숍

<h2>1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1월 21일(금) 15:00~16:00</p> <p><b>방식</b>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15기관 / 37명</p> <p><b>안건</b> 해금협 뉴스레터 Vol. 1 발간, 2021년도 해금협 베트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수, 2022년도 해금협 사업 관련 의견수렴, 2월 정기총회 안건 검토 등</p>
<h2>2월</h2> <h3>2022년 정기총회</h3>	<p><b>일시</b> 2022년 2월 25일(금) 14:00~15:00</p> <p><b>방식</b>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24기관 / 41명</p> <p><b>안건</b> 2021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안, 2022년도 운영규정 개정안, 2022년도 연회비 납부 의결</p>
<h2>3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3월 15일(금) 14:00~14:30</p> <p><b>방식</b>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18기관 / 33명</p> <p><b>안건</b> 2021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2021년도 연차보고서, 주위 싱턴 재경관 초청세미나, 해금협 회원기관별 해외 네트워크 현황조사</p>
<h2>4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4월 29일(금) 14:00~15:00</p> <p><b>방식</b>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17기관 / 25명</p> <p><b>안건</b> 우즈베키스탄 금융관계자 공동 초청연수 개최,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2022년도 해금협 연구용역,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해금협 이메일 서비스 1호 등</p>
<h2>5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5월 27일(금) 14:00~15:00</p> <p><b>방식</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20기관 / 36명</p> <p><b>안건</b> 2022년도 해금협 연구용역, 2022년도 해금협 워크숍,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등</p>
<h2>6월</h2> <h3>정례회의 및 워크숍</h3>	<p><b>일시</b> 2022년 6월 30일(금) 14:00~18:30</p> <p><b>방식</b> 웨스틴 조선 서울</p> <p><b>참여기관/인원</b> 21기관 / 48명</p> <p><b>안건</b> 우즈베키스탄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해금협 발전방안 논의, 회원기관 해외진출 사례 소개 및 해외사업 노하우 공유 등</p>

<h2>7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7월 29일(금) 14:00~15:00</p> <p><b>방식</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21기관 / 36명</p> <p><b>안건</b> 주태국 재경관 초청세미나, 우즈베키스탄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2022년도 연구용역,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등</p>
<h2>9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9월 30일(금) 14:00~15:00</p> <p><b>방식</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19기관 / 31명</p> <p><b>안건</b> 해금협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공동세미나, 2022년도 해금협 예산 전용, 2022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등</p>
<h2>10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10월 28일(금) 14:00~15:00</p> <p><b>방식</b> Zoom(줌) 화상회의</p> <p><b>참여기관/인원</b> 13기관 / 21명</p> <p><b>안건</b>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경제포럼 참석, 2022년도 예산전용 III, 2023년도 회원기관 해외사업 계획 및 일정 조사, 불용예산 사용보고,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등</p>
<h2>11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11월 25일(금) 14:00~15:00</p> <p><b>방식</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p> <p><b>참여기관/인원</b> 19기관 / 31명</p> <p><b>안건</b> 2022년도 해금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22년도 사업비 예산 전용(안) 보고,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등</p>
<h2>12월</h2> <h3>정례회의</h3>	<p><b>일시</b> 2022년 12월 17일(금) 16:30~16:50</p> <p><b>방식</b> 은행회관 14층 대회의실</p> <p><b>참여기관/인원</b> 19기관 / 31명</p> <p><b>안건</b> 2022년도 해금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제7회 국제금융협력포럼, 2022년도 사업비 예산 전용(안) 보고, CIFC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등</p>



**발행일** 2023년 4월 30일  
**발행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층  
**전화** 02-3705-6353 / 6279 / 6147  
**팩스** 02-3705-6288  
**홈페이지** [www.cifc.or.kr](http://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관 5층

TEL 02-3705-6353/6279/6147 FAX 02-3705-6288 [www.cifc.or.kr](http://www.cifc.or.kr)